

## 모자유형과 헤어스타일 및 길이변화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

정수진 · 정해선\* · 강경자<sup>+</sup>

진주보건대학 피부미용과 강사  
서울정보기능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과 교수<sup>+</sup>

### The Impression Evaluation of the Hat's Wearer According to Types of Hat design, Hair-style and Hair-length

Su-Jin Jeong · Hae-Son Jeong\* · Kyung-Ja Kang<sup>+</sup>

Lecturer, Dept. of Dermatology & Beauty Arts, Jinju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eoul IT Polytechnic Colleg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up>+</sup>  
(2005. 10. 7. 접수; 10. 20.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hair-style(straight and wave), hair-length(short, medium and long), and type of hat design(no-hat, beret, cloche, bowler and capeline) on the impressions of hat's wearer.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7-point scale semantic). Thirty stimuli color pictures of various combination of hair length, hair style, and type of hat design were manipulated by computer drawing. The subjects were 360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Kyunggi and Kyungnam.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consisted of the 5 different dimensions (attractiveness, gracefulness, brightness, visibility, cuteness). Each impression of type of hat design, along with hair-style, hair-length had significant effects on gracefulness, visibility and cuteness. Each impression of hair-style, hair-length, along with type of hat design had significant effects on gracefulness, brightness, visibility and cuteness. Thus type of hat design, hair-style and hair-lengt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mpression evaluation of hat's wearer.

**Key Words:** types of hat design(모자유형), hair-style(헤어스타일), hair-length(헤어길이), impression evaluation(인상평가)

#### I. 서론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외모, 행동, 말투, 상황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어진 정보 중 가장 두드러진 단서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인상이 형성된다. 그 중에서 신체적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특히 헤어스타일과 모자는 사람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착용자의 의상과 더불어 흥미의 초점이 된다. 비탈사순(Vidal Sassoon)은 헤어를 모든 신체 부위 중 가장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라고 강조하였고, 신체에서 마음대로 길이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부위는 헤어와 손톱, 발톱뿐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할 때 헤어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최고의 전략 무기라고 하였다<sup>1)</sup>.

인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에 착용하는 모자는 의복에 비해 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집중되고 독특한 개성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

<sup>+</sup>Corresponding author ; Kyung-Ja Kang

Tel. +82-11-9594-1283, Fax. +82-55-753-9030

E-mail : kjkang@snu.ac.kr

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형태나 재질, 색채면에서 그 표현방법이 풍부해지고 액세서리한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복을 표현하는데 있어 모자는 더욱 보편화되고 종류의 다양화만큼이나 그 표현방법이 다양화되어 의복의 한 형태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광주(1989)<sup>2)</sup>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중 어느 것을 변화시킬 경우 자신이 더 달라져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대한 질문에서 의복보다 헤어스타일이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스타일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자가 머리위에 착용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나 길이와 함께 모자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헤어스타일과 얼굴형에 관한 연구<sup>3)4)5)</sup>들이 이루어졌으나 모자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보에서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단서들의 영향을 밝힌 바 있다. 본보에서는 단서로 사용된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인지각이론

인상형성이론은 총체적 접근이론과 인지적, 수학적 접근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총체적 접근은 Asch에 의해 시작되어 날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형태적 접근으로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떤 단서를 사용하게 되는가? 그 첫번째는 신체적 외모로 상대방의 체격, 체형, 얼굴, 건강상태 등이고 그 외에 착용자의 의복, 화장, 안경, 헤어스타일 등도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Delong(1968)<sup>6)</sup>은 신체의 부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전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인상이

형성된다고 할 때 지각자는 눈, 코, 입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에 의한 얼굴윤곽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Gestalt) 형태를 이루어 지각하게 되므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7)</sup>.

Graham과 Jouhar(1981)<sup>8)</sup>의 화장과 머리손질에 따른 여성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는 화장을 한 얼굴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사회적이며, 재미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머리손질유무에 관한 이미지 지각은 여자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여 머리손질을 한 자극물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지각하였고, Waters(1985)<sup>9)</sup>는 외모의 개선이 급료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머리의 색과 모양, 얼굴 색채화장 등으로 외모를 바꾼 자극물 평가에 대한 결과 외모는 모든 직업의 고용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단계가 낮을수록 외모가 급료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직 응모자들 중 전문가로서의 외모가 부족할 경우 채용은 되지 않으나, 승진이나 승급 등이 외모가 좋은 사람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 2. 모자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대의 모자는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모자는 사회적, 시대적으로 각 개인의 신분을 동시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혹은 착용한 자의 개인적 표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모자의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브림이 없는 베레(Beret)와 필박스(Pillbox)가 있고, 머리 전체를 감싸고 턱밑이나 목뒤에서 끈으로 매는 보닛(Bonnet), 후드(Hood)와 헤드 타이(Head Tie)가 있다. 그리고 브림이 좁은 것으로 리본으로 장식하는 밀짚모자형인 보터(Boater)와 펠트를 많이 이용하는 볼러(Bowler)가 있으며, 이와 비슷하나 뒤의 브림이 휘어올라간 티롤모자(Tyrolean hat)와 둥근 크라운에다 앞에 챙이 달려있는 자키(Jockey or Riding)가 있다. 또한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없거나 아주 좁은 클로시(Cloche), 브림이

넓은 케플린(Capeline)등 크라운과 브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sup>10)</sup>. 특히 현대에 와서는 브림의 넓거나 좁거나 하는 단순한 유형의 변화보다는 이를 초월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서희정(2000)<sup>11)</sup>은 모자디자인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디자인과 모자디자인의 시대적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패션과 모자디자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난 세기 전환기인 1900년대를 제외하고는 시대적으로 패션스타일이 과감한 동적인 실루엣이 되면 모자디자인도 형태의 과장이나 강한 장식성을 띠었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스타일이 미니멀해지고 심플한 경향일 경우 모자디자인도 더불어 사이즈가 작아지고 장식이 절제된 디자인으로 나타나 패션스타일과 모자디자인은 시대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자(hat)는 전체적 이미지 균형, 얼굴형, 머리형태, 옷과의 조화를 고려해 각각의 용도, 목적에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하다. 토털 코디네이션의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된 감각이 요구되므로 모자는 작은 부분이라도 주는 인상이 크기 때문에 전체 복식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3.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가지 신체적 외모변인 중의 하나로서<sup>12)</sup> 개인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 변화로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머리형태는 끊임없이 일종의 덮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둘째, 특정한 변칙적 시기를 빼고 확실한 성차별 없이 계급 차의 상징이 되었으며 셋째, 단독으로 혹은 모자나 머리장식과 머리부분의 변형과 수식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넷째, 그로인해 헤어스타일은 때로는 조화적이고 때로는 대립적인 형태로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13)</sup>.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여건에 의한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의 탈피를 가져왔

으며 192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급진적인 변화에 이어 1930년대의 Charles Nessler의 Cold Permanent Wave의 발명과 1960년대의 Vidal Sassoon의 과학적 커팅 기법의 발표 등이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토털 패션이란 개념의 도입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sup>14)</sup>.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인상연구를 살펴보면, Terry와 Davis(1976)<sup>15)</sup>는 얼굴매력은 입, 눈, 얼굴구조, 헤어,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고, Cash와 Solomon(1985)<sup>16)</sup>은 여성의 관리직 평가에서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비관리직 외모단서는 염색된 컬(curl)이 많은 긴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리본이나 머리핀으로 장식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외모단서는 짧고 단순한 헤어스타일로 장식이 없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Pancer와 Meindl(1978)<sup>17)</sup>은 헤어길이 성격에 대한 인상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서 긴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Peterson과 Curran(1976)<sup>18)</sup>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성-매력 가설에 관련하여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었고, 반면에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이었다.

나광주(1989)<sup>19)</sup>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에서 의복이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의복과 헤어스타일 중 어느 것을 변화시킬 경우 자신이 더 달라져 보인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의복이 33.55%, 헤어스타일이 66.45%로 나타났으며, 남이 나를 보고 달라져 보인다고 할 때는 의복이 41.9%, 헤어스타일이 58.06%로 헤어스타일이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라 지각자의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보(1991)<sup>20)</sup>는 얼굴, 헤어스타일, 의복스타일 및 의복무늬가 사회적, 지적 및 활동적 인상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인상형성에는 의복보다 얼굴이, 지적인상과 활동적 인상에는 의복의 영향이 더 많았다. 도주연(1991)<sup>21)</sup>은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연구에서 스트레이트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웨이브는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 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1997)<sup>22)</sup>는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긴 웨이브 머리나 단발웨이브 머리에서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앞머리를 내린 긴 스트레이트와 단발 스트레이트에서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와 단정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긴 스트레이트와 컷머리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숙(1999)<sup>23)</sup>은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헤어스타일(고전형, 낭만형, 자연형, 대담형)에 따른 선호도 및 개인적 특질(외모적, 지적, 사교적)에 대한 지각차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낭만형으로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적 특질로 지각하였고, 고전형은 지성적이고 믿음직하며 신중한 지적특질로 지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쾌활하고 동조적이며 인기있는 사교적 스타일로 지각하여 각 스타일간 특질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소영(2001)<sup>24)</sup>의 연구에서 긴머리는 호의적이고 품위있는 이미지로, 단발머리는 세련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임희정(2001)<sup>25)</sup>은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다고 하였고, 임남영, 강승희(2003)<sup>26)</sup>는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 인상차원으로 분류하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 성별과 역할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지각됨을 밝혔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 1) 자극물의 선정 및 제작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낮’ (조용진)<sup>27)</sup>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준인 머리전체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색상은 최영훈(1990)<sup>28)</sup>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A전문대 패션디자인과 50명을 대상으로 모델의 얼굴을 직접 계측하여 평가집단(교수,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의복스타일은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축성이 있는 검정색 면소재의 앞목점과 옆목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소매 셔츠를 상의로 통제하였다.

헤어길이는 선행연구<sup>29)</sup>를 참고로 하여 쇼트(Short), 미디움(Medium), 롱(Long)의 3가지로 하였다. 쇼트는 컷머리로 귀가 나오는 정도, 미디움은 단발머리로 귀밑 5cm, 롱은 어깨아래 25cm 정도로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헤어디자이너의 자문을 구하여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서 스트레이트(Straight)와 웨이브(Wave)스타일을 선택하였으며, 헤어의 길이에 따라 각각 스트레이트와 웨이브 스타일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헤어의 색은 모자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20대의 모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흑갈색(5YR 2/4)으로 하였다.

자극물의 모자 소재는 봄, 겨울의 모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선행연구<sup>30)</sup>와 천연섬유 중 두 번째로 많이 선호하여 겨울과 봄 등 본 연구의 조사시기와도 잘 맞는 펠트(Felt)로 하였다. 모자 색상은 선행연구<sup>31)</sup>에서 여성용모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색으로 조사되는 계절을 고려하여 검정으로 하였다.

모자유형의 선정은 크라운과 브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 선행연구<sup>32)33)</sup>를 토대로 2000년 봄부터 2002년 가을까지의 Gap Press, Fashion News, Book Moda 등의 컬렉션 잡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여성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형으

으로 머리에 밀착되는 스타일인 베레(Beret)<sup>34)</sup>, 크라운은 약간 높고 브림은 좁으면서 하향인 클로시(Cloche), 둥근 크라운과 양 옆이 약간 올라간 좁은 브림이 달린 형태로서 뺏뺏하며 주로 검정 펠트로 만든 볼러(Bowler), 브림이 넓은 모자의 총칭인 케플린(Capeline)의 4종류로 하고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를 기본형으로 포함시켰다.

자극물은 이상에서 선정한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모자유형을 디지털카메라 Canon Power Shot-G2로 촬영한 후 사진 자극물을 4D-box CAD system과 Photoshop 6.0 program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2가지 헤어스타일(스트레이트, 웨이브)과 3가지 헤어길이(쇼트, 미디움, 롱)에 각각 모자유형(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케플린)을 다르게 하여 3가지 독립변인이 모두 조합되도록 조합한 후 총 30개의 자극물(11×14cm)을 완성하였다. 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 자극물은 <그림1>, 모자유형의 자극물(쇼트-스트레이트 기준)은 <그림2>에 제시되었다. 이때 얼굴형, 상의형과 색, 헤어색,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제하였다. 배경색은 중간명도의 회색으로 처리하여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고, Epson stylus photo 895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단서의 변인 조작내용은 <표1>과 같다.







###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독립변인인 헤어스타일(2), 헤어길이(3), 모자유형(5)의 3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2×3×5)에 의해 조합된 총 30개의






자극물을 3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실험조합에 하나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between subject)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의복 및 헤어의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sup>35-39)</sup> 등을 참

	쇼트 (Short)	미디움 (Medium)	롱 (Long)
스트레이트 (Straight)			
웨이브 (Wave)			

<그림1> 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 자극물

모자안쓴것 (No-hat)	베레 (Beret)	클로시 (Cloche)	볼러 (Bowler)	케플린 (Capeline)
				

<그림2> 모자유형의 자극물(Short-straight hair기준)

<표1> 자극물의 조작내용

모자유형	헤어길이		헤어스타일		모자	
	쇼트(Short/C)	미디움(Medium/M)	롱(Long/L)	쇼트(Short/C)	미디움(Medium/M)	롱(Long/L)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모자안쓴것(No-hat/N)	CSN	CWN	MSN	MWN	LSN	LWN
베레(Beret/B)	CSB	CWB	MSB	MWB	LSB	LWB
클로시(Cloche/O)	CSO	CWO	MSO	MWO	LSO	LWO
볼러(Bowler/R)	CSR	CWR	MSR	MWR	LSR	LWR
케플린(Capeline/E)	CSE	CWE	MSE	MWE	LSE	LWE

고한 형용사와 예비 조사에서 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에 따른 모자유형의 조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을 추가하였으며, 인상평가 어휘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0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총 22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경기 및 경남에 거주하는 패션디자인 관련학과 여대생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3년 3월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헤어길이와 헤어스타일, 모자유형에 따른 여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2개 형용사 쌍에 대해  $\alpha = .83$ 으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인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귀염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83, .88, .73, .73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헤어스타일 · 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 분석

헤어스타일과 길이, 모자유형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0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2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 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여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귀염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요인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7.4%로 5개 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련된-촌스러운, 매력 있는-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보기좋은-보기싫은, 멋있는-멋없는의 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김복숙(1999)<sup>40)</sup>의 헤어스타일로 도출된 인상요인 중 호오성 요인 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2는 깨끗한-지저분한, 안정된-불안정한, 정숙한-정숙하지않은,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신중함-경박함, 차분한-차분하지않은의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다. 품위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윤소영(2001)<sup>41)</sup>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관련 요인 분석에서의 품위성 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3은 즐거운-우울한, 밝은-어두운, 활동적인-활동적이지 않은, 경쾌함-중후함의 4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활동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활동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이향미·김재숙(1998)<sup>42)</sup>의 사교적 차원의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9%였다. 요인4는 강한-약한, 강렬한-무난한, 외향적인-내향적인, 대담한-소심한의 총4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6.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5는 귀여운-성숙한, 스포티한-드레시한,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의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귀염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4.6%의 설명력을 보였다. 김복숙(1999)<sup>43)</sup>의 성숙, 현시적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멋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정숙하고, 단정하며 신중하고 차분한 것으로, 활동성요인에서는 밝고 경쾌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외향적이고 대담한 것으로, 귀염성요인에서는

〈표2〉 헤어스타일 · 길이에 따른 모자유형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sup>2</sup> )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성	<b>.798</b>	.129	.033	.289	.014	.738
매력있는-매력없는		<b>.797</b>	.036	.134	.112	.105	.678
좋아하는-싫어하는		<b>.762</b>	.160	.184	.006	.042	.641
보기좋은-보기싫은		<b>.754</b>	.223	.278	.125	.047	.714
멋있는-멋없는		<b>.714</b>	.171	.165	.362	-.041	.700
깨끗한-지저분한	품위성	.162	<b>.766</b>	.203	.096	.085	.671
안정된-불안정한		.099	<b>.752</b>	.079	.035	-.181	.616
정숙한-정숙하지않은		.076	<b>.703</b>	-.264	-.159	-.168	.624
단정한-단정하지않은		.079	<b>.703</b>	-.141	.016	.098	.530
신중함-경박함		.143	<b>.695</b>	-.196	-.057	-.140	.565
차분함-차분하지않은	.074	<b>.636</b>	-.298	-.252	-.075	.568	
즐거운-우울한	활동성	.270	-.105	<b>.823</b>	.067	.135	.785
밝은-어두운		.263	-.129	<b>.823</b>	-.024	.190	.799
활동적인-활동적이지 않은		.143	-.079	<b>.703</b>	.355	.275	.722
경쾌함-중후함		.135	-.207	<b>.669</b>	.014	.435	.697
강함-약한	현시성	.143	.127	-.040	<b>.806</b>	.056	.691
강렬함-무난함		.275	-.147	-.110	<b>.680</b>	.060	.576
외향적인-내향적인		.121	-.081	.370	<b>.649</b>	.144	.599
대담함-소심함		.217	-.216	.380	<b>.602</b>	.014	.601
귀여운-성숙함	귀염성	.033	-.090	.218	.079	<b>.844</b>	.775
스포티함-드레시함		-.112	-.095	.139	.287	<b>.702</b>	.616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301	-.037	.303	-.128	<b>.698</b>	.687
고유치		6.02	4.17	1.97	1.42	1.01	14.59
전체 변량의 %		27.4	19.0	8.9	6.5	4.6	66.4
공통 변량의 %		41.3	28.6	13.5	9.7	6.9	100.00

귀엽고, 스포티하며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4%로 나타났고, 매력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은 공통변량의 69.9%를 나타냄으로서 헤어스타일 및 길이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 2. 모자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 헤어길이의 인상차이

모자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길이별 인상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3〉에서 보면 현시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

성 요인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웨이브가 있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헤어길이가 미디움이라도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이면 아주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무난하고 내향적이고 소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헤어길이가 아주 짧거나 긴 경우도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헤어길이가 긴 경우는 부정적으로, 짧거나 미디움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헤어길이가 길면 드레시하고 성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어 헤어스타일보다 헤어길이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베레(B)모자를 착용한 경우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4〉에서 보면 5가지 인상에서 어떤 차원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표3〉 모자형이 없는(N) 경우 헤어길이나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인상차원	헤어길이		미디움		롱		F	
	헤어스타일	쇼트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매력성		-.36	-.42	-.84	-.31	.28	.20	1.989
품위성		-.38	-.49	.41	-.44	-.22	-.25	1.232
활동성		-.01	.35	.18	.48	.18	1.30	2.361
현시성		-.15	-.24	-1.17	.02	-.81	-.42	3.102*
Scheffé		a	a	a	a	a	a	
귀염성		.46	.46	.69	.09	-.58	-.71	5.089**
Scheffé		.ab	ab	.a	ab	b	b	

\* : p &lt; .05 \*\* : p &lt; .01

〈표4〉 베레(B)인 경우 헤어길이나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인상차원	헤어길이		미디움		롱		F	
	헤어스타일	쇼트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매력성		.08	.21	-.36	-.30	-.11	.12	.665
품위성		-.14	.50	.20	-.28	.33	-.56	1.960
활동성		-.13	.31	.80	.33	.65	.42	.937
현시성		-.02	.50	.31	.52	.14	.39	.492
귀염성		.65	.19	.80	.14	.63	.39	.853

\* : p &lt; .05 \*\* : p &lt; .01

다. 헤어길이가 쇼트에 스트레이트일 경우를 제외한 활동성, 현시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헤어스타일이나 길이의 영향보다 모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로시(O)모자를 착용한 경우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5〉에서 보면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요인에서 모자가 클로시일 경우 헤어길이가 짧은 쇼트이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 보이고, 헤어길이가 미디움이면 헤어스타일이 웨이브일 때, 헤어길이가 길면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 일 때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헤어길이가 쇼트일 때는 부정적으로, 롱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헤어길이의 영향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헤어

길이가 롱으로 웨이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모자의 영향 즉, 클로시 모자가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길이에 관계없이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일 때는 긍정적으로 웨이브가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에는 헤어스타일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러(R)모자를 착용한 경우 헤어길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 차이를 〈표6〉에서 살펴보면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품위성 요인에서 볼러를 착용할 경우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헤어길이가 쇼트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품위 있는 것으로, 헤어길이가 롱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품위 없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지각



〈표5〉 클로시(O)인 경우 헤어길이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인상차원	헤어길이가 헤어스타일		쇼트		미디움		롱		F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매력성	-.28	-.60	.10	-.10	.56	.17	1.422		
품위성	-.05	.33	.79	-.40	.28	.24	1.540		
활동성	-.30	-.14	-.34	-.36	-.58	.03	.564		
현시성	.05	-.21	.22	-.29	.02	-.22	.501		
귀염성 Scheffé	.74	.19	-.44	.14	.42	-.34	2.435*		
	a	a	a	a	a	a			

\* : p < .05

〈표6〉 블러(R)인 경우 헤어길이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인상차원	헤어길이가 헤어스타일		쇼트		미디움		롱		F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매력성	.06	.05	.14	.07	.54	.09	.404		
품위성 Scheffé	.89	.15	.80	-.12	-.12	-.10	3.004*		
	a	a	a	a	a	a			
활동성	-.12	.10	-.54	.02	-.18	-.62	1.483		
현시성	-.03	.58	.15	-.48	.04	.06	1.087		
귀염성	-.41	-.26	.64	-.12	-.32	.21	1.788		

\* : p < .05

〈표7〉 캐플린(E)인 경우 헤어길이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인상차원	헤어길이가 헤어스타일		쇼트		미디움		롱		F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스트레이트	웨이브	
매력성	.50	-.29	-.02	.16	.18	.61	1.411		
품위성	-.14	-.81	.09	-.29	.21	-.27	1.666		
활동성	-.66	-.30	-.56	.12	-.03	-.40	1.173		
현시성 Scheffé	.88	.24	.53	-.10	-.47	.04	2.909*		
	a	a	a	a	a	a			
귀염성 Scheffé	-.71	.01	-.69	-.48	-.61	-1.26	2.960*		
	ab	a	ab	ab	ab	b			

\* : p < .05

되어 매력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케플린(E)모자를 착용할 경우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7>에서 보면 현시성과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헤어길이가 쇼트인 경우는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대담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이러한 경향은 웨이브보다 스트레이트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헤어길이가 길고 스트레이트일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쇼트일 때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준다. 즉, 모자형태가 크기 때문에 머리길이가 길 때 보다 짧을 때 모자가 주는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3>에서 모자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므로서 케플린을 착용할 때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주었다. 현시성에는 헤어스타일과 길이의 영향보다 모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대체로 헤어스타일과 길이에는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성숙하고 드레시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었다. 케플린의 이미지 즉 모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헤어스타일 · 헤어길이에 따른 모자유형의 인상차이

헤어가 쇼트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 모자유형별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8>에서 살펴보면 품위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품위성 요인에서는 모자유형이 볼러인 경우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숙한 이미지로 지각한 반면에 다른 모자유형에서는 불안정하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모자유형에 따라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가장 품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클로시, 베레,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순으로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볼러와 캐플린인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캐플린을 착용할 경우 가장 성숙해보이고 드레시해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자 안 쓴 것과 4가지 모자 유형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스트레이트에 쇼트 헤어스타일에서는 모자유형과는 상

관없이 중후하고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클로시와 캐플린을 착용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비교적 모자의 형태가 큰 캐플린을 가장 강하고 강렬하고 외향적이고 대담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스타일과 길이보다 모자유형에 따라 인상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가 쇼트이고 웨이브인 경우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9>에서 살펴보면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베레, 클로시, 볼러 순으로 깨끗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느낌의 품위가 있는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거나 비교적 큰 형태의 모자인 캐플린을 착용했을 경우는 품위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어 모자의 유형에 따라서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했을 경우는 헤어길이가 쇼트로 동일하더라도 스트레이트와 웨이브에 따라 품위성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스트레이트가 웨이브 헤어스타일보다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이는 모자유형만으로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헤어가 미디움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10>에서 살펴보면 활동성, 현시성,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베레일 때 가장 밝고 활동적이며 경쾌한 이미지로 지각하였고, 캐플린, 볼러, 클로시 순으로 어둡고 중후하며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캐플린, 베레, 클로시, 볼러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강렬하고 외향적이며 대담한 인상으로 평가하여 현시성 요인에서 모자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모자를 쓴 것이 쓰지 않은 것보다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베레, 모자를 쓰지 않은 것, 볼러 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클로시와 캐플린의 경우 성숙하고 드레시해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 형태의 이미지에 따라서 모자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8〉 헤어가 쇼트(C)이고 스트레이트(S)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36	.08	-.28	.06	.50	1,265
품위성 Scheffé	-.38 a	-.14 a	-.05 a	.89 a	-.14 a	3,300*
활동성	-.01	-.13	-.30	-.12	-.66	.726
현시성	-.15	-.02	.05	-.03	.88	2,092
귀염성 Scheffé	.46 ab	.65 ab	.74 a	-.41 bc	-.71 c	7,948**

\* :  $p < .05$  \*\* :  $p < .01$ 

〈표9〉 헤어가 쇼트(C)이고 웨이브(W)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42	.21	-.60	.05	-.29	1,102
품위성 Scheffé	-.49 ab	.50 a	.33 ab	.15 ab	-.81 b	4,467**
활동성	.35	.31	-.14	.10	-.30	.757
현시성	-.24	.50	-.21	.58	.24	1,788
귀염성	.46	.19	.19	-.26	.01	.854

\*\* :  $p < .01$ 

〈표10〉 헤어가 미디움(M)이고 스트레이트(S)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84	-.36	.10	.14	-.02	1,926
품위성	.41	.20	.79	.80	.09	1,345
활동성 Scheffé	.18 ab	.80 a	-.34 ab	-.54 b	-.56 b	4,669**
현시성 Scheffé	-1.17 b	.31 a	.22 a	.15 a	.53 a	9,766**
귀염성 Scheffé	.69 a	.80 a	-.44 ab	.64 a	-.69 b	6,252**

\*\* :  $p < .01$

**<표11> 헤어가 미디움(M)이고 웨이브(W)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31	-.30	-.10	.07	.16	.652
품위성	-.44	-.28	-.40	-.12	-.29	.145
활동성	.48	.33	-.36	.02	.12	1.576
현시성	.02	.52	-.29	-.48	-.10	1.985
귀염성	.09	.14	.14	-.12	-.48	.784

**<표12> 헤어가 롱(L)이고 스트레이트(S)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28	-.11	.56	.54	.18	.761
품위성	-.22	.33	.28	-.12	.21	.589
활동성 Scheffé	.18 ab	.65 a	-.58 b	-.18 ab	-.03 ab	2.917*
현시성	-.81	.14	.02	.04	-.47	2.029
귀염성 Scheffé	-.58 b	.63 a	.42 ab	-.32 ab	-.61 b	5.312**

\* : p &lt; .05 \*\* : p &lt; .01

**<표13> 헤어가 롱(L)이고 웨이브(w)인 경우 모자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

모자유형 인상차원	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F
매력성	.20	.12	.17	.09	.61	.515
품위성	-.25	-.56	.24	-.10	-.27	1.087
활동성 Scheffé	1.30 a	.42 ab	.03 ab	-.62 b	-.40 b	6.659**
현시성	-.42	.39	-.22	.06	.04	.719
귀염성 Scheffé	-.71 ab	.39 a	-.34 ab	.21 a	-1.26 b	5.812**

\*\* : p &lt; .01

헤어가 미디움이고 웨이브인 경우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11>에서 살펴보면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품위성 요인에서 모자유형별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 미디움 웨이브 헤

어스타일의 경우 모자유형에 상관없이 불안정하고 단정하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베레, 클로시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귀염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로, 볼러와 캐플린을 착용할 경우 매력성 차원에서는 긍정적, 귀염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모자유형별로 인상차이를 보였다. 즉, 미디움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하면 매력적이지 않으나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볼러와 캐플린을 착용하면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여 어떤 모자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달리 지각됨을 알 수 있다.

헤어가 롱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12>에서 살펴보면 활동성요인과 귀염성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롱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에 베레인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밝고 활동적이고 경쾌한 이미지로 지각하였고 클로시, 볼러, 캐플린 순으로 어둡고 비활동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베레와 클로시인 경우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캐플린, 모자를 쓰지 않은 것, 볼러 순으로 성숙하고 드레시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롱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할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함으로써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어 귀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헤어가 롱이고 웨이브인 경우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요인의 차이를 <표13>에서 살펴보면 롱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와 같이 활동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밝고 활동적이며 경쾌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볼러와 캐플린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클로시의 경우는 롱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 때 활동성 요인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반해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헤어길이가 길더라도 헤어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베레와 볼러는 귀엽고 스포티한 것으로, 캐플린, 모자를 쓰지 않은 것, 클로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캐플린은 다른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에서의 경향과 유사하게 가장 성숙

하고 드레시한 이미지로 평가하여 모자의 이미지가 모자착용자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유형, 헤어스타일, 헤어길이의 변화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은 밝히고 차원별 인상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총 30개의 자극물에 대해 30쌍의 형용사상을 요인분석 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에 다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이를 규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자유형, 헤어스타일, 헤어길이의 변화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귀염성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2. 모자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헤어길이의 인상차이를 보면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현시성 요인에서 미디움이고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미디움이라도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이면 가장 무난하고 소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헤어길이가 쇼트와 롱일 경우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헤어길이가 길면 드레시하고 성숙하고 나이 들어 보이며, 짧거나 미디움일 때는 어려워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베레를 착용한 경우 5가지 인상에서 어떤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매력성 요인에서는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헤어길이가 미디움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품위성 요인에서는 헤어길이가 쇼트일 경우 웨이브가 있는 것이 품위 있지만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거나 롱일 경우는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면 품위가 있지만 웨이브가 있으면 품위없는 인상을 주었다. 헤어길이가 쇼트에 스트레이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관계없이 활동성, 현시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클로시를 착용한 경우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헤어길이가 짧은 쇼트일 때 긍정적

으로 지각되어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보이고,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헤어스타일이 웨이브일 때, 헤어길이가 길고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일 때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스타일과 길이는 귀여운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볼러를 착용한 경우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헤어길이가 쇼트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깨끗하고 단정하고 차분한 것으로, 헤어길이가 롱 일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지저분하고 불안정하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헤어길이가 미디움일 때는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일 경우 품위 있는 것으로 웨이브일 경우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케플린을 착용할 경우 현시성 차원에서는 헤어길이가 쇼트일 때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미디움에 스트레이트, 롱에 웨이브 헤어스타일일 때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대담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대체로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성숙하고 드레시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캐플린 모자가 비교적 형태가 크기 때문에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 시 헤어스타일이나 길이보다도 모자 이미지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헤어스타일 및 헤어길이에 따른 모자유형별 인상차이를 살펴보면, 매력성 차원에서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따라 모자유형별 인상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볼러를 착용할 경우 헤어스타일과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장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베레와 클로시를 착용할 경우 쇼트에 스트레이트인 경우는 품위있는 것으로 쇼트에 웨이브인 경우는 품위없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길이가 같더라도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품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어길이가 쇼트일 경우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볼러의 경우는 품위 있는 것으로, 케플린은 품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와 헤어길이가

롱인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클로시, 볼러, 캐플린을 착용할 경우 어둡고 중후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자는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모자유형으로 드러났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와 베레를 착용할 경우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어 활동성 차원에서는 모자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스트레이트인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가지 모자유형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움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제외한 다른 헤어스타일과 길이유형에서 모자를 안 썼을 경우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모자를 착용할 경우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주는 현시성 차원에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귀염성 차원에서 베레일 경우 헤어길이가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장 귀엽고 어려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플린의 경우 헤어길이가 쇼트이고 헤어스타일이 웨이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헤어길이가 헤어스타일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가장 성숙해보이고 드레시한 인상을 주는 모자로 지각하였다. 모자를 안 썼을 경우 헤어스타일에 상관없이 쇼트와 미디움에서는 긍정적으로 헤어길이가 길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헤어길이는 귀염성 인상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및 모자유형에 따라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되고, 모자유형이 동일하더라도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에 따라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이처럼 모자유형, 헤어스타일 및 헤어길이는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에서 각각의 정보가 갖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됨으로서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모자는 작은 부분이지만 착용자의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얼굴형,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의상과의 조화 및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용도와 목적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므로 토털 코디네이션

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를 모자유형 및 헤어스타일과 길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 얼굴형과 메이크업 및 의상의 형태와 색상 등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더욱 넓게 선정하여 다양한 비교를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1) 화장품신문. (2001).
- 2)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 3) Ibid.
- 4) 김양휴 (1996).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5)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pp.784-788.
- 7) Kas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8) Graham, J. & Jouhar, A.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pp.199-208.
- 9) Waters, J. (1985). *Cosmetics and Job Market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pp.113-124.
- 10) 김경희 (1990).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4.
- 11) 서희정 (2000).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0.
- 12) Cash, T. F. & Soloman, M. R. (1985). *The Impact of Grooming Styles on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pp.343-355.
- 13)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2.
- 14) 이효숙 (2004).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15) Terry, R. L. & Davis, J. 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 p.918.
- 16) Cash, T. F. & Soloman, M. R. (1985). Op. cit., pp.343-355.
- 17) Pancer, S. M. & Merndi,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pp.1328-1330.
- 18) Peterson, K. & Curran, J. P.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pp.331-339.
- 19) 나광주 (1989). Op. cit., p.20.
- 20)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3-61.
- 21)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1-58.
- 22) 이영미 (1997).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4), pp.13-25.
- 23) 김복숙 (1999). Op. cit., pp.89-92.
- 24) 윤소영 (2001). Op. cit.

- 25) 임희정 (2001).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pp.340-351.
- 27)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세계절출판사.
- 28) 최영훈 (1990). *색채학개론*. 미진사, pp.104-105.
- 29) 이영미 (1998). Op. cit., pp.13-25.
- 30) 박혜경 (1990).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 31) 김경희 (1990). Op. cit., pp.34-37.
- 32) 서희정 (2000). Op. cit.
- 33) 김영자 (1976). 현대 한국여자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67.
- 34) 이경손 외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p.180-183.
- 35)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43.
- 36) 강혜원, 남미우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pp.241-257.
- 37) 김복숙 (1999). Op. cit., pp.36-40.
- 38)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24.
- 39) 윤소영 (2001). Op. cit., pp.34-38.
- 40) 김복숙 (1999). Op. cit., p.36.
- 41) 윤소영 (2001). Op. cit., p.34.
- 42)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 43) 김복숙 (1999). Op. cit., p.36.